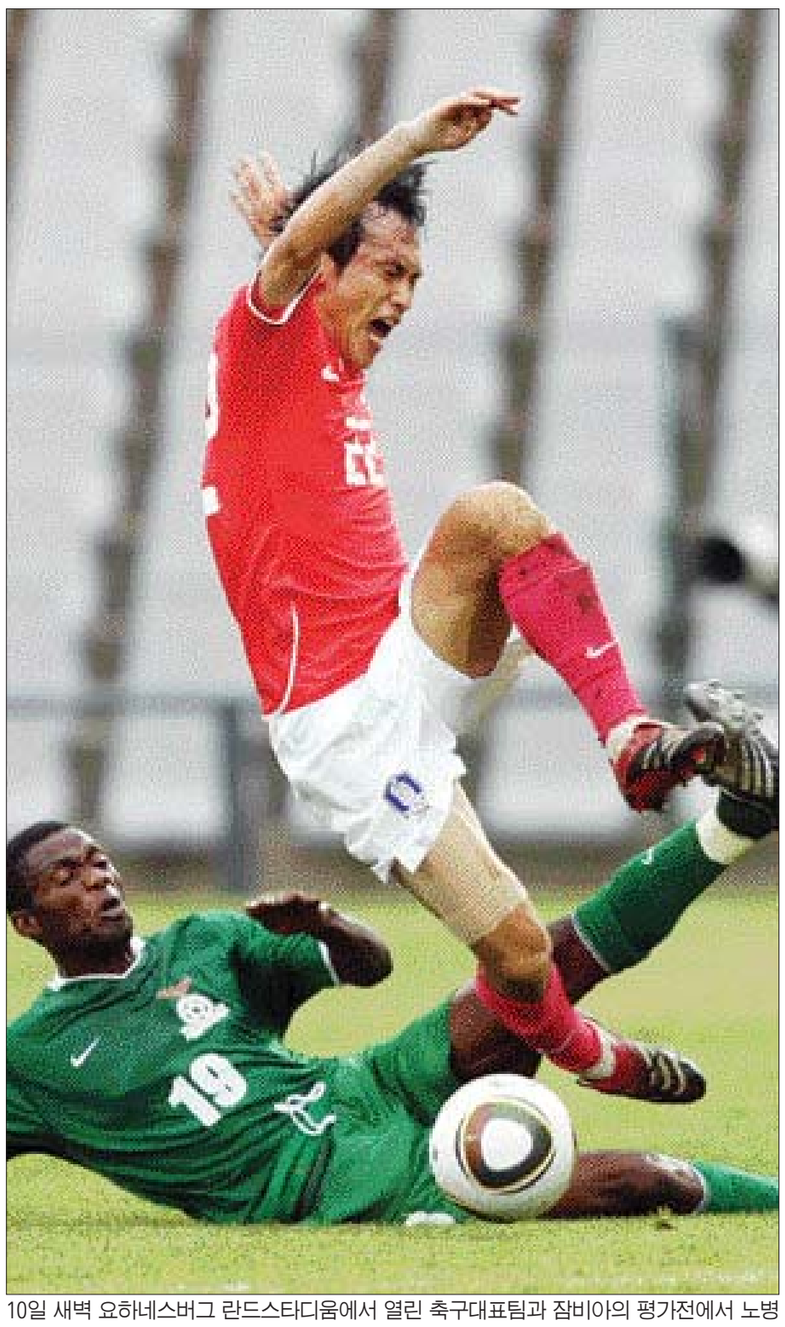
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10일 새벽 요하네스버그 란드스타디움에서 열린 축구대표팀과 잠비아의 평가전에서 노병준이 토마스 뉘렌다로부터 파울을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젊은 피' 무난한 신고식

김신욱·이승렬·김보경·구자철 등 신예 활약 합격점

잠비아 평가전 2대4 완패… 아프리카 뜨거운 맛 경험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의 해'인 2010년 첫 A매치에서 아프리카의 복병 잠비아에 완패를 당했다.

한국은 10일 새벽(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란드스타디움에서 끝난 잠비아와 친선경기에서 2-4로 무릎 꿇었다.

전반 6분 펠릭스 카통고, 14분 레인포드 칼라바에게 연속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전반 34분 김정우(광주)의 만회골로 따라붙었지만 후반 12분 제임스 차망가, 28분 노아 키부타에게 다시 골을 허용하며 맥없이 주저앉았다. 후반 37분 구자철(제주)이 다시 한 골을 만회했지만, 승패에 영향은 주지 못했다.

남아공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상대인 아프리카 강호 나이지리아를 겨냥해 마련한 이번 잠비아와 평가전에서 패하면서 허정무 감독 부임 이후 한국 대표팀의 A매치 성적은 14승13무3패가 됐다.

허정무호 출범 이후 대표팀이 한 경기에서 세 골 이상 내준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축구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뉴페이스들은 무난한 신고식을 치렀다.

수비수 최철순(23·전북)과 이규로(22·전남), 미드필더 김재성(27·포항), 김보경(21·홍익대), 공격수 김신욱(22·울산), 이승렬(21·서울) 등 6명은 10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잠비아와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가졌다.

이들은 35명의 예비 엔트리에서 25명의 전지훈련 명단에 이름을 올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찾았고 여러 선수의 기량을 점검하려는 허정무 감독의 구상에 따라 잠비아와 경기에 선발 또는 교체 선수로 투입됐다. 이들 모두 첫 A매치였지만 비교적 무난한 데뷔전이었다는 게 허정무 감독의 판단이다.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했던 최철순은 후반 시작과 함께 중앙수비수 이정수(가시마)가 빠지면서 교체 기용된 이규로가 오른쪽을 맡자 왼쪽 풀백으로 이동해 전.후반 90분을 풀타임으로 뛰었다.

또 이규로는 이정수를 대신해 후반 시작과 함께 그라운드를 밟아 A매치 첫 출전의 기쁨을 누렸고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소속팀 포항 스틸러스의 우승에 앞장섰던 김재성도 데뷔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재성은 김정우(28·광주)와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했지만 잠비아에 두 점을 내준 전반 중반에 김두현과 자리를 맞바꾸면서 오른쪽 날개로 활약했다. 김재성은 후반 29분 이승현(25·부산)으로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나왔다.

'젊은 피' 3총사 김신욱과 이승렬, 김보경도 활발한 움직임으로 허정무 감독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김신욱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동국의 교체 선수로 나가 노병준(31·포항)과 투톱 공격수로 호흡을 맞췄다. 196㎝의 장신을 이용한 공중볼 다툼과 적절한 위치 선정 등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왼쪽 날개로 교체 투입된 '왼발 달인' 김보경과 신인왕 출신의 스트라이커 이승렬도 활발한 측면 돌파와 슈팅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연합뉴스

"뉴페이스 만족… 조직력 갖추면 해볼 만"

허정무 감독 "선수들 자블라니 적응안돼 허덕"

"비가 온 뒤라 그라운드가 미끄러워 선수들이 제대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시차와 고지대 적응도 완전하지 않았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10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란드스타디움에서 열린 잠비아와 평가전에서 2-4 완패를 당한 것에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허정무 감독은 경기 후 "선수들이 상당히 힘들어했다. 또 첫 경기이고 비가 온 뒤라 그라운드가 미끄러워 몸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 시차나 고지대 적응이 떨어졌다.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위안거리라면 후반에 들어간 김보경과 이승렬, 구자철 등이 활기차게 했고 김신욱도 패스 등 움직임이 좋다. 노병준도 처음 뛰었지만 활기찼다"며 신예 선수들과 뉴페이스들의 활약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허정무 감독은 그러나 "고지대인 데다 그라운드가 미끄러워 선수들이 패스의 강약을 맞추지 못했다. 패스나 킥을 할 때 공에 못 따라가거나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킥해주는 볼이 스핀이 먹지 않는다. 감아서 크로스를 하려고 하면 그냥 쭉 뻗어나가는 현상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허 감독은 특히 사령탑 취임 후 최다 실점 패배에 대해 "오늘 같은 경우는 전술·전략이 무의미하다. 선수들이 빙판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중심을 못 잡고 허덕였다. 수중전도 경험했지만 이례적으로 선수들이 중심을 잡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나서 "전반에도 이운재가 골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먹었고 두 번째도 조금 실수가 있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선수들의 조직력이나 역량이기보다 손써 볼 수 없는 경기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영록, 러 톰스크서 김남일과 한솥밥

지난해 1월 터키 프로축구 부르사스포르에 입단했다가 계약금 미지급 문제로 구단과 결별한 공격수 신영록(23)이 러시아 프로축구 톰 톰스크 유니폼을 입게 됐다.

톰 톰스크는 9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터키 부르사스포르에서 뛰던 한국인 공격수 신영록과 2년 계약을 맺었다"라며 "조만간 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신영록은 지난해 12월 먼저 톰 톰스크 구단에 입단했던 김남일에 이어 발레리 니폼니시 감독이 선택한 두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신영록이 입단하게 될 톰스크는 지난 시즌 러시아리그에서 16개 팀 가운데 13위를 차지한 중하위권팀이다. /연합뉴스

호랑이들 KS우승반지 꼈다

KIA 상징 'K'세팅… 백금·다이아몬드 등 장식

2009시즌 챔피언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우승반지를 꼈다.

KIA의 우승을 기념하는 우승반지가 완성됐다. 이번에 제작된 반지는 보석 브랜드 '골든듀'에서 제작한 것으로 백금과 다이아몬드, 에나멜로 장식됐다.

검은색과 흰색이 대비된 반지 중앙에는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야구공이 형상화 됐다. 동그라미 안에는 KIA를 상징하는 'K'가 세팅됐다. 반지 정면에는 KS 2009 CHAMPIONS KIA가 쓰여있고, 측면에는 선수 이름과 배번, KBO 엠블렘 등이 새겨져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토고축구대표 무장 괴한 총격에 3명 사망…정부 귀환 방침 불구

선수들 "네이션스컵 뛰겠다" 출전 강행

2010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 참가차 버스로 국경을 넘던 토고 축구국가대표팀이 지난 8일 앙골라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총격을 받고 3명이 사망한 피습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토고 정부는 대표팀에 대회 출전 계획을 포기하고 귀환 방침을 내렸지만 선수들이 자체 투표를 통해 대회 출전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토고 대표팀의 공격수 토마스 도세비(낭트)는 10일(한국시간) AFP 및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죽은 동료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하기로 했다"라며 "모두 상심해있지만 우리 대표팀의 가치를 보여주길 원한다. 우리는 남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토고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선수단 전체가 간밤에 모여 투표를 했고, 만장일치로 대회에 나서는데 찬성했다"라고 덧붙였다.

도세비는 특히 "아프리카축구연맹(CAF)이 이번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경기 일정을 재조정하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다. CAF는 참가국보다 대회의 이익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비난했다.이에 앞서 토고의 파스칼 보드요나 국토행정부 장관은 토고 수도 로메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토고 정부는 팀을 철수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더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대회 출전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선수들은 정부의 발표와 별개로 선수단 투표를 통해 토고로 돌아가지 않고 12일 새벽 예정된 가나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B조 1차전 경기를 예정대로 치르자는데 뜻을 모았다.

토고 대표팀은 네이션스컵 개막을 앞두고 8일 전지훈련지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2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앙골라 국경선을 넘어서 국경도시 카빈다를 지나다 무장 괴한에게 총격을 받았고, 버스 운전기사와 팀 대변인, 코치 등 3명이 사망했다.

사건 직후 카빈다 소수집단 해방전선(FLEC) 측은 이번 총격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FLEC는 AP통신에 이메일을 보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카빈다에서 대회를 치르지 말라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조직위원회도 무책임하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양용은 몰아치기 '톱 10' 보인다

PGA 시즌 개막전 3R 16위

양용은(38)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0시즌 개막전인 SBS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7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렀다.

양용은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 골프장 플랜테이션코스(파73·7천411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8개를 몰아치며 이날 데일리베스트인 7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이날까지 9언더파 210타를 친 양용은은 2라운드 공동 27위에서 공동 16위로 뛰어올라 마지막 날 10위권 내 진입도 노릴 수 있게 됐다.

2번 홀(파3) 보기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듯했던 양용은은 곧바로 3번 홀(파4) 버디로 이를 만회했고 이후 버디만 7개를 더 추가했다. 순위는 공동 16위지만 공동 5위권과도 4타 차이밖에 나지 않아 톱10 진입 가능성은 충분하다. /연합뉴스